

# 만주와 해방후의 기억

辛珠栢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책임연구원

## 1. 머리말

사람의 기억은 개별적인 사실이 퇴적되어 보존된 결과라기보다 현재와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생성·변화되어 간다. 그래서 모든 기억은 유기체로서 현재시제라고 말한다. 개인 뿐만 아니라 국가의 기억도 마찬가지다. 특히 근대 국민국가에서 기억은 교육에 의해 재창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가의 기억은 개인 기억의 총합이 아니다. 국가의 기억만이 역사로 인식되어 온 것이 현실이며, 그것은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이란 핵심적인 유통경로를 통해 재생산되고 있다.

이 글은 1945년 8·15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南北韓에서 滿洲를 어떻게 記憶하고 있는가를 추적하였다. 한국인의 滿洲에 關한 國家의 記憶, 곧 滿洲記憶과 관련된 선행 연구는 없다. 기억을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는 자료집도 없다. 그래서 필자는 한국사 교과서 속에서 만주가 어떻게 언급되어 왔는가를 추적하여 한국인이 갖고 있는 만주에 관한 이미지의 일단을 정리하고자 한다.

흔히 남한에서는 한국근현대사와 관련하여 만주 지역을 언급할 때 백두산 정계비와 관련된 間島, 移住地로서의 滿洲, 항일운동의 공간으로서의 滿洲 등으로 기억되어 왔다. 따라서 논문에서도 항일운동의 공간으로서의 滿洲를 중심으로 이에 관한 서술이 왜, 그리고 어떻게 바뀌어 왔는가에 관심을

두겠다. 이를 통해 滿洲記憶의 現在性이 어떻게 바뀌어 왔으며 그것이 갖는 의미도 정리해보겠다.

이 글에서는 한국인의 만주에 관한 기억을 다음 세 가지를 기준으로 정리하겠다. 우선, 국가의 기억에 대한 핵심적인 유통경로인 교육, 그 중에서 학교교육에서 어떻게 만주에 대한 기억이 관리되어 왔는지를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를 통해 정리하겠다.<sup>1)</sup> 둘째, 논문은 주로 남한의 국가에서 만주를 어떻게 기억해 왔는가를 언급하면서 북한에서는 어떻게 기억되어 왔는지도 간간히 언급하는 방식으로 작성하겠다.<sup>2)</sup> 셋째, 남한의 역사교과서에서 만주기억에 관한 서술은 크게 세 시기, 즉 1965년을 전후한 시기(제2, 3장)와 2003년 이후 시기(제4장)로 각각 나누어 보겠다. 본문에서 확인되겠지만, 1965년은 한일협정에 체결된 해이고, 이 시기를 전후로 독립운동사 연구에 새로운 분위기가 형성된다. 2003년은 제7차 교육과정에 따라 중학교의 국정 『국사』교과서와 고등학교의 『한국근·현대사』교과서 교육현장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해이다.

## 2. 잊혀진 滿洲, 革命傳統으로서의 滿洲記憶

8·15 이후 한국인이 처음 접한 역사교과서는 미군정치의 문교부에서 1946년에 발행한 『國史教

논문접수일 : 2005년 3월 20일, 게재확정일 : 2005년 4월 20일

- 1) 만주기억이 어떻게 관리되어 왔는가를 정리할 때, 문학작품도 중요한 분석대상이다. 하지만 2004년 12월 부산에서 열린 만주학회 주최 국제학술대회에서 이와 관련된 두 편의 논문이 발표되었기 때문에 필자는 필요한 곳에서만 간단히 언급하겠다.
- 2) 북한의 만주에 대한 기억은 역사교과서를 중심으로 확인하기보다 각 시기의 대표적인 저작물을 통해 확인하겠다. 1945년 이후 교육과정마다 발행된 역사교과서를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대신에 북한과 조선노동당이 인정하는 각 시기의 대표적인 역사책을 분석 대상으로 하겠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교과서를 참조하지 않아도 본 논문에서 의도하는 내용 분석에 별다른 지장이 없을 것이다.

本』이다. 이 책에서 만주라는 말은 1931년 일본이 만주를 침략했다고 간략히 언급할 때만 유일하게 나온다. ‘해외망명’이라는 小項目에서조차 “미국 노령의 연해주 중국 상해 등지”에서 망명객들이 항일운동을 벌였다고만 나온다. 이 부분은 李丙燾가 집필했는데, 그는 항일운동사를 ‘국권회복운동’ - ‘3·1운동’ - ‘假政府樹立’ - ‘폭탄사건’ - ‘광주학생운동’ - ‘신간회운동’에 이어 李奉昌과 尹奉吉義舉를 설명하는 순서로 네 쪽에 걸쳐 서술했다.<sup>3)</sup> 남한에서 오늘날까지 일제강점기 항일운동사를 이해하는 기본적인 흐름, 곧 臨時政府 正統論은 이렇게 하여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거의 같은 시기에 교과서를 출판한 申奭鎬는 이병도의 논리를 더욱 보강했다고 볼 수 있다. 신석호는 ‘文敎部新教授要目’에 의거하여 집필한 교과서에서 조선인의 만주인민을 간략히 언급하고 간도공산당이란 단어도 독립운동의 전개과정에서 여러 단체와 더불어 나열했지만,<sup>4)</sup> 이병도처럼 만주지역에서의 항일운동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에 3·1운동의 여파로 일어난 독립운동을 “통일 지도하기 위하여” 임시정부가 세워졌다고 명확히 하였다. 또 1926년의 6·10만세운동과 1940년의 ‘광복군’을 새로 언급하여 抗日運動의 系統的 흐름을 보강하였다.<sup>5)</sup> 이병도 역시 1949년에 처음 출판한 자신의 교과서에서 신석호처럼 6·10만세운동과 한국광복군에 대해 언급하였다.<sup>6)</sup> 두 사람은 만주에서의 역사를 배제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만주가 잊혀진 공간이 되게 한 것이다.

이후 제1차 교육과정(1955~1963)과 1965년 이전의 제2차 교육과정(1963~1973·1974) 때 발행된 대다수의 교과서에서 만주는 언급되지 않았다. 단지, 만주는 일본이 만주를 침략한 것을 계기로 조선이 군사공업화되어 갔고 국내에 거주하는 조선인의 생활이 더욱 어렵게 되었다는 내용을 언급하는 가운데 나온 단어에 불과하였다. 정치적 이유에서든, 경제적 동기에서든 못살아서 떠나는 곳으로서의 만주인 것이다. 달리 말하면, 남한의 역사교과서에서 새로운 개척의 땅이자 희망의 땅이었던 만주, 항일운동 공간으로서 만주라는 이미지는 없었던 것이다.<sup>7)</sup>

이렇게 해서 만주는 사실상 잊혀진 공간으로 되어 갔다.<sup>8)</sup> 왜냐하면 분단으로 인해 만주거주 조선인들이 해방 이후 남한으로 내려오는데 어려움이 많았을 것이고, 남한 내부에서 또는 남북한 사이에 격렬한 좌우대결 등이 만주기억을 종합하는데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또한 만주지역에서 항일운동을 했던 사람들 가운데 남한사회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물론 다음과 같이 언급한 교과서도 있기는 했다.

이 때에 일제의 침략에 대항하여 수많은 우리의 무장 독립 단체가 동북 만주와 간도 지방에서 쫓겨하여 활발한 독립 운동을 전개하고, 일본군과 거듭 심한 싸움을 일으켜, 많은 전과를 거두었으며, 한편 상해 지방에서 . . . . (인용자)<sup>9)</sup> 하지만 이러한 경우는 비록 추상적인 언급이라 할지

3) 美軍政廳 文敎部, 『國史敎本』, 1946, 171 - 174쪽.

4) 申奭鎬, 『中等國史』, 東邦文化社, 1948, 213쪽. 215쪽. 이 책은 8월 25일 印刷되어 31일에 發行되었다. 1955년도 검정 때는 『중학교 사회생활과 國史』로 바뀌어 출판되었다.

5) 申奭鎬, 『中等國史』, 214쪽. 215쪽, 218쪽.

6) 李丙燾, 『우리나라의 생활(역사)』, 白映社(1949發行, 1950修正發行, 1951修正發行), 1952, 1955. 본고는 1955년도 발행본을 참조하였다.

7) 이러한 공간으로서 만주의 이미지를 복원한 소설이 安壽吉의 『北間島(1959~1967)』일 것이다(吳養鎬, 『韓國文學과 間島』, 文藝出版社, 1988, 206~216쪽).

8) 1945년 이후 문학작품에서 만주를 잘 다루지 않았던 점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가령 1946년에 발표된 嚴興燮의 『귀환일기』와 李琴南의 『이향(異郷)』은 모두 귀국과정에 대해 체험적으로 쓴 단편 소설이다(『閔炫基 編, 『韓國流移民小說選集』, 啓明大學校出版部). 이들 소설은 작자와 만주를 분리시키는 과정으로서 거리두기를 시도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라도 오히려 예외적인 서술로 보아야 한다.

어떤 형태의 만주기억도 국가에 의해 제대로 재생되지 않음으로서 잊혀져 가고 있던 남한에 비해, 북한은 일찍부터 만주지역에서의 항일투쟁을 자기 역사의 한 부분으로 서술했을 뿐만 아니라 만주기억이 국가에서 관리하는 핵심적인 기억으로 자리 잡았다. 필자가 현재까지 확인한 책 가운데 가장 공식적인 북한의 첫 역사책인 『朝鮮民族解放鬪爭史』(1949)에는 국내외의 여러 사회주의운동이 언급되어 있는데 만주지역의 항일무장투쟁에 관해서도 서술되었다. 특히, 김일성이 이끈 항일무장투쟁은 “조선민족해방투쟁의 주류”였다고 평가하였다.<sup>10)</sup> 이후 몇 차례의 정치적 갈등을 거치고 역사연구의 방향성이 정립되면서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만주지역에서의 遊擊鬪爭만이 唯一한 革命傳統으로 자리 잡았고, 나머지 서술은 완전히 배제되었다.<sup>11)</sup> 그 대표적인 성과가 1962년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에서 출판한 『조선근대혁명운동사』이다.<sup>12)</sup> 이처럼 남한과 달리 이미 1950년대 하반기에 이르르면, 북한은 김일성과 유격대의 항일투쟁 공간으로서만 만주에 관한 기억을 압축시키고 단순화했던 것이다.

### 3. 경쟁하며 兩極화된 滿洲記憶

#### 1. 남한에서 복원되는 만주기억(1965 - )

남한에서 국가에 의해 배제됨으로서 잊혀져 가고 있던 만주기억은 1965년 韓日國交正常化를 契機로 歷史化되어 갔다. 원래 제2차 교육과정은 민족의

국난 극복을 강조하며 학생들로 하여금 “애국 애족 정신을 함양”하고, “민족문화를 계승 발전시킨다”는 점을 특히 강조하였다.<sup>13)</sup> 그런데 여기에 더하여 한일협정을 계기로 “‘자유’의 수호만을 지상명령으로 알고 있던 이 땅의 사람들은 이제 비로소 민족 또는 민족문화의 수호를 생각”하게 되었다.<sup>14)</sup>

이에 따라 일본의 식민지 지배 실상과 경험을 체계화하여 후손들에게 알려주고, 항일투쟁의 민족적 역량을 계승해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하였다. 민족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방향이 설정된 것이다.<sup>15)</sup> 그 첫 번째 가시적인 성과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1965년부터 1969년까지 발행한 『韓國獨立運動史』 1~5권(정음사)였다. 이 책은 한국정부에서 만든 첫 독립운동사 책이자 자료집이다. 책에는 의병전쟁부터 한국광복군의 활동까지 기술되어 있고, 그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가 광범위하게 번역되어 있다. 朝鮮革命軍을 포함한 만주지역 독립운동사도 언급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자료도 풍부하게 수록되어 있다. 드디어 만주기억이 국가에 의해 역사화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기 시작한 것이다.

더구나 북한의 武裝共匪南派事件이 빈발하는 등 1960년대 중반 들어 南北關係가 緊張되어 갔다. 장기집권을 꿈꾸던 박정희는 국민을 통합하기 위한 수단으로 1968년 國民教育憲章을 선포하고, 학교에서의 교련교육과 사회에서의 향토예비군 훈련을 통해 군사교육을 강화하고 사회동원을 체계화하였다. 박정희 정권은 1969년 제2차 교육과정의 일부를 개정하여 “나라의 독립과 민족의 얼을 지켜왔던 조상의 업적”을 더욱 강조하는 역사교육을 통

9) 역사교육연구회 엮음, 『중등 국사<중학교 1~2년용>』, 정음사, 1956, 157쪽.

10) 國史編纂委員會 編, 『朝鮮民族解放鬪爭史』, 金日成綜合大學, 1949, 380쪽.

11) 이 과정에 대해서는 신주백, 『북한의 근현대 반침략투쟁사 연구』, 한국역사연구회 북한사학사연구반, 『북한의 역사만들기』, 푸른역사, 2003 참조.

12) 이 책은 1988년 한마당이란 출판사에서 출판되었다.

13) 『紙上座談 改正된 教育課程과 歷史教育의 諸問題』, 『歷史教育』 9, 1966.10, 165쪽. 李廷仁의 발언이다.

14) 『歷史學報』 49, 1970, 1 - 2쪽. 1969년 - 1970년 역사학계의 동향을 李佑成이 總說한 부분이다.

15) 제2차 교육과정이 제정되면서 한때 한국정부는 일본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倭亂을 日亂으로, 壬辰倭亂을 壬辰日亂으로 사용하도록 지도하기도 했다.

해 強力한 反共統一政策을 지향하였다.<sup>16)</sup>

제2차 교육과정 당시 발행된 중·고교 역사교과서에서 만주와 관련된 서술의 가장 큰 특징은 間島의 歷史와 移住民, 그리고 滿洲地域에서의 獨立運動史를 구체적이고 비교적 상세하게 언급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sup>17)</sup> 그 중에서도 신석호의 『인문계 고등학교 국사』가 가장 풍부하고 비교적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다.<sup>18)</sup>

먼저 서술의 편의상 그가 언급한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자. 교과서의 ‘VII. 조선의 근대화 운동’ 가운데 ‘4. 일본의 진출과 민족의 수난’이란 부분은 6개의 小項目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가운데 ‘3. 일본의 독도 강탈과 간도 양여’라는 부분이 있다. 간도 관련 내용을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간도는 백두산 동북쪽 두만강과 토문강(土門江; 松花江 上流) 사이의 북간도 일대를 말하는 것으로서 본래 고구려□발해의 땅이다. 뒤에 여진족이 살고 있었으나 청이 일어난 뒤 여진인이 증원으로 이주하여 이곳에는 거의 사람이 살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청국은 이곳을 그 조상의 발상지라 하여 극히 중요시 하고, 1712년(숙종 38년)에 사람을 보내어 백두산에 정계비(定界碑)를 세워 토문강과 압록강을 경계선으로 삼았다.

그 후 우리 나라 유민(流民)이 많이 간도로 이주하게 되어 두 나라 사이에 간도 문제가 일어나 1881년(고종 18년)부터 약 20여 년간 분쟁을 거듭하였는데, 한국은 정계비를 근거로 조금도 양보하지 않았다. 그러나, 을사 조약 이후 일본이 이 문제를 가로막아 1909년(융희 3년)에 안봉선(安奉

線)과 푸순(撫順) 탄광 등을 교환 조건으로 간도의 주권을 청국에 넘기고 말았다. 이는 우리의 의사가 아니며, 간도 지방에는 동포가 주민의 8할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니, 이 문제는 장래의 숙제로 남아 있다.<sup>19)</sup>

신석호처럼 ‘독도’를 小項目의 제목으로 뽑아 한 쪽 분량 가까이 서술한 것도 보기 드문 경우일 뿐만 아니라 간도의 역사와 영토문제를 1/2쪽 이상으로 언급하고 있는 점 또한 다른 교과서에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례이다. 그의 서술 내용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토문강은 두만강이 아니라는 해석문제와 더불어 간도가 일본의 대륙권 의정책과 맞교환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장차 우리가 해결해야 할 미완의 문제로 남겨두고 있다는 점이다.

신석호와 같은 문제의식이 표출된 역사교과서는 장왕사에서 발행한 『중학 사회』(2) 교과서이다. 여기에서도 ‘간도 문제’라는 小項目이 설정되었으며, 간도의 역사와 영토문제를 2/3쪽 분량으로 언급하면서 “간도 문제는 마땅히 다시 정당한 해결을 지어야 할 것이다”고 끝맺었다.<sup>20)</sup> 뒤에서 확인 되겠지만 간도의 영토문제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제7차 교육과정에 따라 발행된 현행 중학교 『국사』 교과서와 큰 편차를 드러낸 대목이다.

신석호는 일본의 식민지 정책 밑에서 가난해진 농민들이 간도와 중국, 시베리아, 일본, 미국, 러시아 등지로 떠났다고 하면서 ‘2. 국내외의 독립 운동’에서 만주지역 저항운동에 대해 다음과 같이

16) 『文教部令 第251號(1969.9.4 改定 公布) 中學校教育課程』, 『初·中·高等學校 社會科·國史科 教育課程 基準(1946-1997)』, 教育部, 281쪽.

17) 제2차 교육과정기 중등학교 역사교과서를 보면, 중학교의 사회 교과서는 11종, 고등학교의 세계사 교과서는 10종, 국사 교과서는 11종이었다. 필자는 이들 교과서를 거의 대부분 검토했지만, 전체적인 경향을 설명하는데 지장이 없으므로 몇 종만을 예를 들어 언급하겠다.

18) 신석호, 『인문계 고등학교 국사』, 광명출판사, 1968, 224-226쪽. 232쪽. 236쪽. 1968년 1월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다.

19) 신석호, 『인문계 고등학교 국사』, 225쪽.

20) 金庠基 외 5인, 『중학 사회』(2), 장왕사, 1967, 228쪽. 역사교과서에서 이러한 언급이 가능했던 것은 申基碩의 논문 「間島歸屬問題」(『중앙대학교 논문집』; 1955.5) 이후 몇 편의 연구논문이 발표되었기 때문이다.

언급하였다.

한편 만주에서는 3·1운동 직후 서로 군정서(西路軍政署)·북로군정서 등 수많은 무장 독립단이 조직되어 압록강·두만강 연안의 일본 수비대를 공격하면서 국내 침투 공작을 활발히 전개하였는데, 1921년 김좌진(金佐鎭; 1889~1930) 장군이 이끄는 독립군은 청산리전투(靑山里戰鬪)에서 크게 일본군을 무찔렀다. 그러나, 1931년에 만주사변(滿洲事變)이 일어나 일제가 만주를 지배한 후 만주에서의 독립 운동은 불가능하게 되었다.<sup>21)</sup>

비록 청산리전투가 벌어진 해를 1921년으로 잘못 언급하고 1931년 이후 만주지역에서의 독립운동이 없었던 것처럼 묘사한 점은 사실에 맞지 않지만, 만주지역에서의 독립운동에 관해 이 정도의 분량으로, 더구나 1920년대 전반을 언급한 교과서도 당시로서는 많지 않다.<sup>22)</sup> 실제 간도 영토문제와 만주지역에서의 독립운동에 관해 모두 언급한 경우는 신석호 이외에 변태섭 뿐이었다. 반대로 두 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은 역사교과서도 있었으며,<sup>23)</sup> 둘 중 하나만을 서술한 경우도 많았다.

만주지역에서의 독립운동을 언급한 경우, 1910년대 해외로 망명한 사실만을 서술한 교과서도 있고, 청산리전투 등에 대해 언급한 경우라 하더라도 모든 교과서에서 사실에 오류를 한 가지 이상씩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일본이 만주를 침

략한 이후 만주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던 독립군의 동향을 언급한 서술에 교과서마다 편차가 아주 심하였다. 가령 일본이 만주를 침략한 것을 계기로 만주지역의 독립운동이 사라졌다고 한 경우,<sup>24)</sup> 한국독립군과 중국군의 연합투쟁만을 언급한 경우,<sup>25)</sup> 일부는 ‘장백산’, 곧 백두산에 들어가 유격투쟁을 했고 일부는 광복군에 합류했다고 언급한 경우,<sup>26)</sup> 그리고 고등학교의 모든 역사교과서들이 1933년 이후 조선혁명군의 활동을 언급하지 않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만주기억을 둘러싼 심각한 편차와 오류는 연구가 진척되지 않은 것 때문이기도 하였다. 1960년대까지 만주지역 독립운동사에 관한 연구는 앞서 언급한 『韓國獨立運動史』의 서술과尹炳奭의 연구정도가 대표적이었고,<sup>27)</sup> 나머지는 대부분 회고록 성격의 책이었다.<sup>28)</sup> 이민사에 관해서도 高承濟의 연구가 첫 논문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sup>29)</sup> 더구나 독립운동사의 맥락이 이론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가운데 서술되었기 때문에 시기의 편차와 지역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이들 교과서는 臨時政府 正統論에 입각한 전체 독립운동사에서 만주지역의 독립운동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 학생들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요컨대 1965년 이후 南韓에서도 滿洲記憶이 集合的 記憶으로 復原되기 始作하였다. 하지만 사실과 역사적 의미의 전달은 학생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는 측면이 있었다. 또한 사회주의운동 계

21) 신석호, 「인문계 고등학교 국사」, 236쪽.

22) 고등학교 교과서 가운데 청산리전투 등 만주지역에서의 독립운동을 자세히 언급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문교부, 「실업계 고등학교 국사」, 1968 ; 윤세철 신형식, 「인문계 고등학교 새로운 국사」, 정음사, 1968 ; 변태섭, 「인문계 고등학교 국사」, 법문사, 1971 ; 이원순, 「인문계 고등학교 국사」, 교학사, 1973. 모두 1968년 1월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로서 신석호의 언급보다 많은 분량을 만주지역 독립운동에 할애하였다. 중학교의 교과서 가운데는 金聲近 외 2인, 「중학교 사회」Ⅱ, 敎育出版社, 1966이 있다. 간략히 청산리전투가 있었다는 점만 언급하였다.

23) 한우근, 「인문계 고등학교 국사」, 을유문화사, 1968 ; 이홍직, 「인문계 고등학교 국사」, 동아출판사, 1971. 두 교과서 모두 1968년 1월에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다.

24) 신석호, 「인문계 고등학교 국사」

25) 변태섭, 「인문계 고등학교 국사」 ; 이원순, 「인문계 고등학교 국사」

26) 문교부, 「실업계 고등학교 국사」 ; 윤세철 신형식, 「인문계 고등학교 새로운 국사」 ; 이원순, 「인문계 고등학교 국사」

27) 尹炳奭 「參議 正義 新民主府의 成立過程」, 『白山學報』 7, 1969.12

28) 대표적인 보기가 金承學 編著, 『韓國獨立史』, 獨立文化社, 1965이다. 이 책은 1970년에 上下로 분책되어 다시 출판되었다.

29) 高承濟, 「間島移民史의 社會經濟的 分析」, 『白山學報』 5 1968.12

열의 활동이 애초부터 복원대상으로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북한과 다른 내용으로 복원되고 있었지만 選擇的 復原이었다는 점에서는 같았다. 결국 내용은 달랐지만 양측 모두에서 정치적 동기가 강하게 작용했다는 점에서 같은 바탕(본질)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 마지막으로 남한에서 만주기억의 선택적 복원의 기준은 주로 反日에 焦點이 맞추어져 있었으며, 사회주의운동 계열의 활동 역시 배제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항적인 행위 이외의 내용은 복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복원된 기억은 원초적 민족주의를 강조하는 기재로 활용되었다는 점에 그 政治性이 있었다. 이러한 기준과 의미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 2. 남북한 정통성 경쟁과 만주기억(1974 - )

남한의 역사교육은 제3차 교육과정기(1973·1974~1981)에 들어 급격히 바뀌었다. 역사교과서가 국정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사 과목이 사회과에서 독립했기 때문이다.

박정희의 維新政權은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해야 할 이유로 “1. 민족적 가치관 확립을 위한 일관성 있는 교육 실시”, “2. 주체적 발전적 사관의 객관화”, “3. 풍부한 사료를 활용한 교과서 편찬”, “4. 교과서 가격의 저렴화”를 들었다. 특히, 첫 번째 이유와 관련해 국사 교육은 도덕 및 국어 교육과 함께 “가치관 교육의 중핵”으로 지정되었다.<sup>30)</sup> 그래서 유신정권은 제3차 교육과정의 첫 번째 학습 목표로 “우리 민족의 발전 과정을 주체적인 입장에서 파악시키고, 민족사의 정통성에 대한 인식을 깊게 하며, 문화 민족의 후예로서의 자랑을 깊이 하게 한다”고 내세웠다.<sup>31)</sup> 유신정권은 주체적 민족의식과 민족문화, 그리고 민족사적 정통성을 강조하는 ‘국적 있는 교육’을 내세웠던 것이다.

유신정권의 획일화되고 통제된 역사교육은 민주화와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대중과 유신정권 사이의 국내적 모순을 억누르려는 박정희의 정치적 계산에 따른 것으로서 維新體制의 產物이었다. 동시에 유신정권의 역사교육은 唯一體制로 국가 권력을 재편한 북한과 체제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기도 하였다. 즉, 북한은 1970년 조선노동당 제5차 黨大會에서 주체사상을 마르크스-레닌주의와 함께 당의 공식 이데올로기로 인정했으며, 1972년 12월 主席制를 제도화한 사회주의헌법을 선포하고 김일성 중심의 唯一體制를 明文化하였다. 북한은 이후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내걸었고, 주체사관에 입각하여 기존의 역사를 전면적으로 재해석하기 시작하였다.

‘가치관 교육의 중핵’으로서 국가교육을 강화하려는 박정희와 여기에 대응하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통해 首領制를 안착시키려는 김일성, 이들은 상대를 의식하며 역사를 재구성하려고 적극 시도하였다. 즉, 남한은 1973년부터 1979년까지 『한국사』 1~25권을 국사편찬위원회 주도로 출판하였다. 북한은 1979년부터 1982년까지 『조선전사』 1~33권을 출판하였다.

한국사 전반에 걸쳐 통일적 파악을 시도한 남북한 양측은 滿洲記憶도 再構成한다. 『국사』 교과서에서 간도의 역사와 영토문제가 정면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이때부터였다.

『중학교 국사』에서는 ‘1. 일제의 주권침략’ 부분에서 ‘(3) 일본의 독도 침탈’에 이어 ‘(4) 일본의 간도 양여’라는 小項目 가운데 1/2쪽 분량으로 이 문제를 다루었다. 여기에서 “울사조약 후 일본이 이 문제를 가로막아 자기들의 만주 침략을 위해 청에 넘겨 주고 말았”는데, “이는 우리 의사가 아니며, 간도 지방에는 우리 동포가 전 인구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니, 역사적으로 보아도

30) 「문교부 보고서 : 중·고교 국사교육 국정화」, 『보고번호 제73-328호 國史教科書의 國定化方案 報告(1973.6.9)』

31) 「文教部令 第325號(1973.8.31 改定 公布) 中學校教育課程」, 『初·中·高等學校 社會科·國史科 教育課程 基準(1946-1997)』, 教育部, 287쪽.

간도는 우리 영토임이 틀림없다”고 명시하였다.<sup>32)</sup>

또한 ‘6. 국내외에서의 독립 투쟁’에서는 2와 1/2쪽 분량으로 ‘(3) 독립군의 봉오동 전투’, ‘(4) 청산리 전투’, ‘(5) 대한 독립군단의 활약’, ‘(6)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의 활약’으로 나누어 만주 지역 독립운동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그런데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 내용을 자세히 설명했다는 점에서 이전과 다르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논리가 세련되어졌다는 점이다. 교과서에는 “국내에서 일본군의 맹렬한 공격에 밀린 의병들은 새로운 독립운동 기지를 찾아 만주로 이동”하여 이를 건설하고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하여 독립군 간부를 양성하였다고 나온다. 여기서 말하는 독립운동기지가란 어떤 것일까. 『고등학교 국사』는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독립 운동 기지가란 서북 간도와 연해주에 한민족의 집단적 거주지역을 만들어 항일 독립 운동의 거점을 이룩하는 것이었다. 그 곳에서 산업을 일으켜 경제적 토대를 마련하고 청소년을 모아 근대 교육과 군사 훈련을 시켜, 해외에 있는 우리 한민족을 조직화, 무장화시켜 독립 전쟁을 수행하려는 것이다.<sup>33)</sup>

사실상 공백이나 다름없던 1910년대 만주지역 독립운동을 독립운동기지가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면서 1910년 전후의 역사를 매끄럽게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의 문제점, 즉 임시정부 정통론 속에서 애매했던 만주지역 독립운동사의 위치를 한 가지 해명했음을 가리키는 것이다. 달리 보면 독립운동을 중심으로 만주지역을 재구성하려는 國家의 記憶管理가 本格化되었음을 意味한다.

이후 독립운동기지를 건설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新民會의 역할이 크게 강조되고 ‘새로운 무장 투쟁의 근거지’로 沿海州가 추가되면서 大韓光復會라는 단체가 갑자기 부각되는 등 논리가 더욱 세련되고 내용이 풍부해져 갔다.<sup>34)</sup> 이는 관련된 연구성과가 발표된 결과이지만<sup>35)</sup> 그 근본적인 줄기는 『독립운동사』 5,6권(1973, 1975)이며, 국사편찬위원회(1971~), 秋憲樹(1971), 독립운동사자료집편찬위원회(1971~1976)에서 각각 資料集을 집중적으로 출판하면서 연구의 토대가 구축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그 중에서도 『독립운동사』 제5권의 副題는 ‘독립군전투사(상)’이고 제6권의 副題는 ‘독립군전투사(하)’인데, 이를 獨立戰爭이란 이름으로 義兵鬪爭에서부터 韓國光復軍의 活動까지를 全部 體系化하였다. 이 책에서는 독립전쟁의 배경과 기반, 그리고 역사를 다음과 같이 보았다.

독립 전쟁은 이미 을미 의병의 항일전부터 시작되어 을사 조약 체결과 1907년 근대 해산을 계기로 하여 전국적인 항일전으로 전개되어 1908년 · 1909년에 이르러서는 전민족적인 무력전의 성격을 띠었다. . . . (점선-인용자)

그러나 일제의 우월한 병력과 야만적 초토 작전으로 의병의 항전은 1909년 말부터 약화되어 1910년 이후로는 국내에서의 집단적인 큰 활동은 일단락을 짓게 되었다. 그러나 의병의 무장 항쟁은 온 겨레에게 독립 정신을 고취하고 무장 독립전쟁의 정신적 배경을 이루었다. . . .

3·1운동은 독립 운동에 큰 전환기를 가져 오게 하였다. . . . 비폭력 운동을 표방했던 3·1운동의 실패에 감하여 무장 항쟁과 독립군의 국내 진격이 해외 독립 운동의 대목표가 되었다. 이

32) 문교부, 『중학교 국사』, 1975, 216쪽.

33) 문교부, 『인문계 고등학교 국사』, 1974, 206쪽.

34) 1982년도 중·고등학교의 『국사(하)』 교과서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35) 대표적인 경우가 다음 두 논문이다. 愼鏞廈, 『新民會의 創建과 그 國權恢復運動(上)·(下)』, 『韓國學報』 3-34, 1977; 조동걸, 『안동유림의 도만경위(渡滿經緯)와 독립운동상의 성향』, 『大邱史學』 15-1, 1978

러한 해외의 무장 항쟁은 국내의 독립 운동과 밀접한 관련을 짓고 있었다.

해외의 독립 전쟁은 그 지역적 조건에 따라 활동의 양상을 달리 하였다. 만주·연해주를 국내 진격을 위한 군사 기지로 성장하고 중국의 임시 정부는 모든 독립 운동의 상징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하였으며, 미주와 화와이는 군자금 지원과 외교 활동의 중요 역할을 하였다.<sup>36)</sup>

이에 입각하여 제5권은 1931년 일본이 만주를 침략한 이후부터 만주에서 싸우던 한국독립군이 중국의 관내로 이동했다는 점까지 서술하였고, 제6권은 ‘독립군 투쟁의 최후를 담당’한 한국광복군에 대해 다루었다.<sup>37)</sup>

특히, 『독립운동사』 제5권의 경우 의병투쟁이 독립전쟁으로 형태 전환했다는 설명과 더불어, 1909년 봄 신민회 간부들의 비밀회의를 계기로 독립전쟁의 기지가 만주에 건설되기 시작했다고 서술하였다. 독립전쟁으로의 전환에서 新民會의 역할을 지적한 것이다. 다만,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이런 지적은 1979년 제3차 교육과정의 부분 개편에 따라 출판된 중·고등학교의 『국사』 교과서에 반영되지 않았다. 그러다 1982년 제4차 교육과정(1981~1987·1988)의 중·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에서부터 언급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의병투쟁보다 신민회의 선구적인 역할을 더 인정하는 형식으로 서술되었다.<sup>38)</sup> 또한 이때부터 독립군의 일부가 연해주 또는 소만국경 일대에서 싸우

고, 나머지는 중국의 관내로 이동하여 한국광복군 결성에 참여했다는 서술기조가 공식화된다.<sup>39)</sup> 여기에서 전자는 사회주의운동 계열의 활동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선택적 서술방식이 바뀌지는 않았다. 독립전쟁이란 시각에서 이 계열의 활동도 언급할 수 있다는 생각이 반영된 결과에 불과하다.<sup>40)</sup> 그렇지 않았다면 1930년대 만주지역 무장 투쟁의 핵심인 사회주의운동 계열의 활동도 서술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독립전쟁이란 시각에서 일제하 항일운동사를 전면적으로 체계화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었다. 그것이 시도된 시기는 제5차 교육과정(1987·1988~1992) 때부터였다. 가령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는 ‘III. 민족의 독립 운동’이란 大項目에 ‘2. 대한 민국 임시 정부와 독립 전쟁’이란 中項目을 설정하고 ‘(2) 국내의 독립 전쟁’, ‘(3) 국외의 독립 전쟁’으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2)’에서는 천마산대 등 무장단체의 활동, 의열투쟁, 6·10만세운동, 광주학생항일운동을 다루었고, ‘(3)’에서는 만주지역 독립운동사와 한국광복군을 서술하였다.<sup>41)</sup> 이렇게 편집된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1980년대 중후반이 되면 독립운동사 연구자들 사이에 독립운동의 한 방법으로서 독립전쟁론이 무엇인지를 정의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sup>42)</sup> 논자들의 견해를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지만, 이런 논의가 제5차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에 반영되었을 것이다.

36)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독립군전투사(상)』, 독립유공자사업기금운용위원회, 1973, 33-34쪽.

37) 이러한 시각에 입각하여 서술된 책은 ‘민족운동 총서 편찬위원회’의 네 번째 시리즈물로 신재홍이 집필한 『독립군의 전투』(사단법인 민족문화협회; 1980)도 있다.

38) 국사편찬위원회, 『고등학교 국사(하)』, 1982, 126-127쪽.

39) 국사편찬위원회, 『고등학교 국사(하)』, 1982, 145쪽; 국사편찬위원회, 『중학교 국사(하)』, 1982, 142쪽.

40)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독립군전투사(상)』, 658쪽. ‘결론’ 부분에 이와 관련한 언급이 있다.

41) 국사편찬위원회, 『고등학교 국사(하)』, 1990, 142-150쪽.

42) 제기한 순서를 따라 이름을 들면 박성수, 박영석, 윤병석, 신용하 등이다. 논자들마다 약간의 의견차이가 있었는데, 신용하는 안중근이 독립전쟁론의 첫 주창자였고 그의 의견이 신민회의 독립전쟁론으로 계승·발전했다고 본다(慎鏞廈, 『獨立戰爭論』, 『향군』 1990.3). 박영석은 1910년 이후 독립군에 의해 왜적구축전쟁이 시작되었는데 이것이 독립전쟁이라고 보았다(朴永錫, 『獨立戰爭論』, 『民族知性』, 1986.8). 박성수는 한국독립전쟁은 1895년 의병부터 한국광복군까지 전개되었다고 보았다(林成壽, 『총설』, 金昌順·朴成壽 編, 『韓國獨立戰爭史-南北의 視角』, 三光出版社, 1989).

그런데 이후 國定の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독립전쟁’이란 제목이 전면에 등장하기보다 한국광복군의 활동까지를 포함하여 해외지역에서의 독립운동을 설명하는 하나의 틀로서만 제한된다. 가령 제7차 교육과정(2002~)의 중학교 『국사』 교과서에서는 ‘IX. 민족의 독립 운동’에서 ‘2. 3·1운동’, ‘3. 독립 전쟁의 전개’, ‘4. 국내의 민족 운동’으로 구분하고, ‘3’에서는 만주와 연해주지역의 독립운동, 테러 등 의열활동, 한국광복군의 활동을 다루고 있다.<sup>43)</sup> 항일운동사 전체를 독립전쟁이란 이름으로 체계화하기에 무리가 따르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독립전쟁론도 여러 독립운동의 하나라는 시각에서 출발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항의 공간으로서의 만주기억이 이전에 비해 한층 세련되어진 것만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시정부 정통론이 독립전쟁론과 만나 더욱 체계화된 것만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럴수록 또 다른 滿洲記憶, 곧 社會主義運動 系列의 活動은 더욱 巧妙하게, 그리고 더욱 確實하게 排除될 수밖에 없다. 실제 ‘가짜김일성론’이 학문적 실증이란 이름 아래 광범위하게 유포되어 대중의 뇌리 속에서 확실히 각인된 것도 1970,80년대였으며,<sup>44)</sup> 사회주의운동 계열의 항일 활동을 반민족적이라는 각도에서 서술한 것도 이때였다.<sup>45)</sup> 이 반대편에 있던 북한은 주체사관에 입각하여 의병투쟁 이후 김일성의 아버지 김형직에 의해 民族解放運動의 方向轉換이 試圖되었으며, 김일성이 결성했다는 打倒帝國主義同盟에서 方向轉換이 完成되고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으므로 朝鮮現代史가 이때부터 始作되었다고 해석하였다. 앞서 언급한 『조선전사』 이외에 『항일무장투쟁사』 1~10(1979), 『조선로동당략사』(1979)는

이러한 해석을 공식화한 대표적인 서적이다. 王朝的 滿洲記憶을 대중에서 더욱 강조한 것이다. 따라서 항일투쟁의 우월성 경쟁은 투쟁 이외의 만주지역, 예컨대 일상적 삶에 대해 역사적 외면을 더욱 조장하고 획일화시키고 있다. 여기에서 만주로의 이민이 희망을 찾아 나선 것인지, 항일을 위해 나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기회는 원천적으로 주어지지 않는다.

#### 4. 擴張되고 있는 滿洲記憶, 剝製화된 體格下되고 있는 滿洲記憶(2003 - )

2003년도부터 고등학교에서는 6종의 『한국근·현대사』 교과서가 사용되고 있다. 중학교의 『국사』 교과서는 여전히 國定制를 적용받고 있지만, 고등학교에서는 한국근현대사와 관련된 부분에 관한 檢定制에 따라 교과서가 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서술 경향이 많이 등장하였다.

제7차 교육과정에 따라 서술된 『한국근·현대사』 교과서는 필자들의 견해에 따라 내용에 약간씩의 편차는 있다. 다만, ‘3. 무장 독립 전쟁의 전개’에서 ‘국내의 항일 민족 운동’, ‘의열단과 한인 애국단의 활동’, ‘1920년대 만주 지역 독립군의 활동’, ‘1930년대 무장 독립 전쟁’, ‘대한민국 임시 정부와 한국광복군’을 다루고 있는 점은 공통된다. 이러한 목차에 따라 독립전쟁에서 국내의 6·10만세와 광주학생운동을 서술하고 있고, 1930년대 사회주의운동 계열의 게릴라투쟁이 ‘무장 독립 전쟁’이란 이름 아래 포함되어 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교과서 필자들에게 교육과정을 통해 무리한 계열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43) 교육인적자원부, 『중학교 국사(하)』, 2002, 274~279쪽.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은 1920년 청산리전투 이후 만주지역 운동사를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짝수 페이지별 편집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문제가 있는 독립운동사 서술이다.

44) 천연하자면, 이명영과 박갑동에 의해 ‘김일성 가짜설’의 학문적인 체계화가 시작된 시점은 1970년대 전반이었다. 즉 1960년대 후반부터 격화되는 남북간의 체제우월경쟁과 시기적으로 맞물리며, 이들의 경력 또한 이를 증명해 준다. 1970년대 후반 허동찬이 여기에 가세한다.

45) 국사편찬위원회, 『고등학교 국사(하)』, 1990, 158쪽.

그런 가운데서도 1930년대 만주지역의 항일무장투쟁을 모든 교과서에서 언급하고 있어 만주지역이 확장되고 다양해진 것만은 부정할 수 없다. 가령 2004년도 교육현장에서 가장 많이 채택되고 있는 금성출판사의 교과서는 1쪽 분량으로 게릴라투쟁의 모든 과정과 더불어 1937년 6월의 보천보전투도 ‘역사의 현장’이란 박스를 만들어 특별히 언급하고 있다.<sup>46)</sup> 때문에 이와 관련된 이념공세가 있기도 했다.<sup>47)</sup> 즉, 국가가 관리하는 만주지역에 변형이 시도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던 사람들, 곧 선별적 기억으로 재창조된 것이 남아지는데 반대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독립전쟁론을 부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점이다. 사회주의운동 계열의 게릴라 투쟁은 기본적으로 독립전쟁론과 대중적 기반을 만들어 나가는 방식, 운동 지도부의와 관계, 그리고 독립 이후 국가건설 전망에서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무리하여 독립전쟁이란 틀 속에서 이들 활동을 설명한다면 朝鮮革命論에 입각하여 무장투쟁을 벌이고 있던 이들로서는 결국 임시정부 정통론을 재해석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그것은 부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 분명하며, 지금은 어정쩡한 타협을 하고 있는데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이러한 상태는 만주지역이 확장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더구나 만주지역이 유연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높이 살 필요가 있다. 어정쩡한 타협의 현재적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북한은 1990년대 들어 주체사관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 크게 바뀌고 있다. 북한에서는 1993년 단군릉을 발견했다고 발표하고 발굴 작업에 들어갔다. 더구나 가중되고 있던 식량난, 그리고 사회주의권의 몰락

과 핵문제 등으로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있는 현실에서 1994년 김일성 주석이 사망함으로써 국가적 위기에 직면하였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남한과의 체제경쟁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던 북한은, 한반도 역사를 平壤中心說로 재해석하면서 大同江文化論을 제기하고 김일성민족설을 주장하고 있다.<sup>48)</sup> 이는 고대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만주지역에 대한 스스로의 권위를 격하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分斷體制를 強化시키는 歷史認識이다. 확장되고 있는 남한의 역사인식과 반대로 북한에서는 그것이 矮小化하고 있는 것이다.

## 5. 맺음말

이상에서 해방 이후 남한의 역사교과서에서 만주에 대한 기억이 왜, 어떻게 되어 왔는지를 고찰하였다. 논문에서는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지 않겠다.

만주는 한국 민족의 탄생 공간이다. 그래서 원초적 민족주의를 자극하는 공간이다. 한국고대사를 논할 때 만주를 배제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재야’라는 이름의 연구자가 가장 많은 시대분야가 한국고대사인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근현대사와 연관지어 만주를 설명하면 만주의 의미는 투쟁의 공간, 침략의 공간으로서 다가왔다. 못살아서 찾아간 공간이었다는 점에서 생활의 공간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희망을 찾아간 공간은 아니었다. 그리고 다양한 삶이 공존하는 공간도 아니었다. 따라서 그동안의 역사교육은 원초적 민족주의만을 자극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러한 원초적 민족주의도 독립투쟁사와 항일무장투쟁사라는 선택적 기억으로 남한과 북한의 주민에게 다가왔다. 선택된 기억은 사실로만 따지면 원래 선택할 수 없는 기억이지만

46) 김한중 외 5인, 『한국근·현대사』, 금성출판사, 1993, 196쪽.

47) 「특종 - 김일성 항일활동도 부각」, 『주간조선』 1716, 2002.8.15

48) 자세한 내용은 한국역사연구회 북한사학사연구반, 『북한의 역사만들기』에 수록된 도면희의 「북한의 한국사 시대 구분론」과 권오용의 「단군릉 사건과 대동강문화론의 전개」 참조.

남북한의 국가에 의해 적극적으로 관리되면서 지금까지 왔다. 그리고 통치권내에 있는 주민들에게 자기 체제에 맞게 원초적 민족주의 정서를 차별적으로 주입해 왔다. 그러나 남한과 북한의 차별화된 기억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다. 경쟁을 통해 배제하는 비대칭적인 관계를 들어내는 기억이라는 점에서만 다를 뿐인 것이다.

우리의 역사교육은 투쟁(침략)의 공간으로서의 만주만 전달할 뿐, 만주국이란 역사적 실체를 우리가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 자체를 차단하였다. 만주를 통치하고 있던 만주국의 역사가 전혀 등장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배워 온 만주라는 공간은 만들어진 가상공간이었음을 의미한다. 분단체제하 남북한의 우월경쟁은 이러한 가상공간을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 지금과 같은 역사교육은 펼쳐지고 있는 21세기 동북아시아 속에서 만주를 역사적 현실대로 보고 접근하지 못하게 할 뿐이다. 거기에는 感性的 滿洲像만이 있기 때문이다.

ままだ歴史教育は原初的な民族主義だけを刺戟するしかなかった。でも、こんな原初的な民族主義も獨立闘争史と抗日武裝闘争史という選擇的な記憶として南韓と北韓の住民にがんじされた。

わたしたちの歴史教育は闘争(侵略)の空間としての滿洲だけ傳達する以外、滿洲國という歴史的實體をわたしたちがせつする機会を遮斷した。分斷體制下の南北韓の優越競争は滿洲という假像空間をもっと擴大していた。いまのままの歴史教育は21世紀の東北亞時代に滿洲を歴史的な現實態でみて接近できないだけだ。そこには感性的な滿洲像のみがあるかぎり。

주제어 : 만주, 만주기억, 남한, 북한, 교육, 역사교과서

## 要 約

### 滿洲と解放後の記憶

辛 珠 栢

滿洲は韓民族の誕生空間である。それで原初的な民族主義を刺戟する空間だ。韓國古代史を論じるとき滿洲を排除できない理由もここにある。‘在野’という名前の研究者がいちばん多い時代分野が 韓國古代史である理由もおなじだ。

どころで韓國近現代史と聯關して滿洲を説明すると滿洲の意味は闘争の空間, 侵略の空間としてがじてくる。生活がくるしくてたずねた空間なので生活の空間だったといえますが、希望をのぞんでたずねた空間でわなかった。そして多様なくらしが共存する空間でもなかった。しだかつてい